국가형제회
신임 (재속프란치스코회)역사(歷史)담당 책임자

국가형제회는 재속회 역사담당을 톰 맥나라마형제애개 새로 위촉하였다. 톰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나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랐고 아내 조안나와 같이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있다.

레지나 클레리 신학교 졸업생인 톰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는 미술공부를 했고 프레스콧 대학에서 상담치료/예술요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내와 함께 2011 년 6 월 13 일 토마스모어지구 세인트프란시스 형제회에서 서약했으며 3 년동안 지구형제회 부회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그는 형제회 역사기록을 관리하면서 아리조나주 재속회역사를 폭 넓게 탐구하게 되었다. 그는 국가형제회의 역사담당책임자 자리를 수락하였으며 미국 재속회 앞으로의 역사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베틀

글쓴이:톰 맥나마라 OFS

역사란 모든 창조물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일이다.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그 분은 그 역사안에 몸소 들어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모르고 하느님을 안다고 할수 없다. 하느님은 베틀로 시간을 엮어 우리의 삶을 한폭의 천으로 짜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삶, 계시, 역사—이 모든것이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이다. 프란치스칸은 이 사실을 알기때문에 우리의 여정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은 힘들고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주님의 식탁에는 모든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 예복이 바로 우리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만, 실은 미래도 포함된다. 미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며 이 점이 우리가 변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회개”라고 부른다.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하느님의 뜻에는 이미 회개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수많은 결로 짜여진 역사라는 천에는 삶 전체 즉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

삶의 여정에는 우리의 뜻도 부분적으로 담겨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각가지 부분(쪼각)을 모아 한폭의 매끄러운 천을 만드신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 쪼각 또는 희미한 한 부분이지만 역사안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일은 그 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자기 작품을 바라 보며 매우 흡족해 하신다.

역사를 정리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역사의 참된 가치와 매력을 심어주는 사명이다.

역사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짚어주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어떤 운명인지는 모르지만 운명이란 것이 있다는것은 확실하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 보다 먼저 걸어간 분들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자취는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닥아오는 Quinquennial*을 맞이하여 2008 년부터 2020 년까지의 새로운 역사를 정리하려 한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거나, 이일에 도움을 줄 사람을 알거나, 기타 이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란다. (아래 연락처** 참조)

*5 년 단위로 열리는 미국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의 대회

**Tom McNamara, 5024 E. Virginia Ave, Phoenix, AZ 85008
전화: (602)840-0673